

“순천 교육공동체 실행 과정 감동”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순천시 열린 포럼 참석

지역사회 교육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순천에서 자발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전남 순천시 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제2차 권역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순천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며 “순천이 현장에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 주민들의 협업사례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제도의 한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업모델을 확산시켜야 하는 과정도 주신 만큼 주신 의견들을 잘 챙기고 종합해 지역에 맞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을 주제로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장석웅 전남교육감,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미래형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미래교육정책방향·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은 마을미디어활동가와 순천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만든 오픈형 영상작품 ‘우리가 순천이다’ 상영을 시작으로, 유은혜 부총리와 장석웅 전남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권역별 포럼’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이 인사말을 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협력사례 발표’에서는 신원섭 순천시청 주무관이 ‘지방교육자치를 만드는 순천형 민관학거버넌스’, 김숙희 순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는 순천인’, 김현주 전남마을교육연구소장이 ‘마을과 학교 함께 만든 동천마을교육과정’을 소

개했다.

포럼의 핵심인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정담회 자리에서는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자체 교육지원 담당직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인 대학교수 등이 참석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광주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7일부터 28일까지 관내 학교운동부 초·중·고등학교 129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학생선수가 많은 학교운동부(야구·축구) 지도자 23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24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8월3일부터는 학생선수를 대상

으로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이 토론과 역할극을 실현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이번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에 잠재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할 방침이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개선과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예방중심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2020.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

진도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행동 매뉴얼 교육 실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24시간 비상체제 가동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의식)

은 지난 7월 17일(금)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 조치 가동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최근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지단계부터 대응 조치·점검보완·후속조치

등 네 단계로 구성된 긴급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다.

급번 매뉴얼은 팀장 및 교직원 이 여러 차례 협의와 진도군 및 보건소 의견을 들어 최종 매뉴얼화 하여 공유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 단계로 격상되어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상시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청사 방문자에 대하여 임시 민원실 마련 운영, 전자출입명부(QR 코드) 활용 등 외부인을 통제하는 한

편, 각종 회의는 영상회의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의식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과 상황별 조치 방법에 대한 공감교육이 되었다.”

비상시 교육지원청·진도군·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진도대교 발열체온 현장에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갈등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전남교육청,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1일 초등 교감, 교장 25명을 대상으로 여수·순천 일원에서 ‘평화·통일 리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해방 이후 좌우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여수·순천 10·19 사건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뿌리를 찾고,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의 필요성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수 14연대 주둔지, 중앙동 집회장, 만성리 위령탑에서 여순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들었다. 이어, 순천역과 장대공원, 동천제방, 매산동, 순천대, 순천 위령탑을 돌아보며 제주4.3진압을 거부한 14연대

의 봉기와 토벌과정에서 희생된 슬픈 역사의 흔적을 체험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장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간 학살의 현장을 보며 역사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픈 과거를 통해 미래세대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관심을 갖고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학생과 교사들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며, 갈등을 이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진행됐으며, 오는 9월 22일(화)에는 중등 교감, 교장 30명을 대상으로 2기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무안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위한 진로 설계 상담 프로그램

과목에 대한 상담 및 진로 설계 과정 진행

무안고등학교는 7월 13일~7월 16일까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진로설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들 스스로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에 진행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 7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학생 개인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과목에 대한 상담 및 진로 설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1:1 상담으로 진행되어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

이 프로그램에 앞서 학교에서는 등교개학 전부터 온라인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회, 진로 검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단계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등교개학 후에도 학과 계열 선정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